

SFAC 문화예술정책 동향리뷰

[SFAC 문화예술 정책동향리뷰]는 문화, 사회, 기술, 정책, 해외, 연구 동향관련 기사를 선별해서 격일로 제공하는 **텔레그램 채널 [문화+정책_뉴스스크랩]** 중에서 간추린 주요 이슈들과, 매달 셋째 주에 서울문화재단 블로그에 연재되는 **[이슈페이퍼_문화+정책]**의 요약본으로 구성됩니다. 더 관심이 가는 내용은 제공된 웹 링크를 통해 원문으로 즐기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호 (발간일 : 2022.12.7)

작성자 : 김혜보 정책협력실 전문위원

[문화+정책 뉴스 스크랩] 中 주요기사 요약

11월 키워드 : #장애와 예술, #월드컵 효과, #인구

지난 11월 9일 예술의 전당에서는 특별한 연주회가 열렸습니다. 선천적 장애로 양팔이 없어 발로 호른을 연주하는 펠릭스 클리저의 독주회였습니다. 그는 "장애는 눈에 보이는 약점일 뿐이며...장애인과 비장애인은 모두 각자의 강점과 약점을 가진 하나의 인격체"(연합뉴스, 2022.11.2.)라고 말했습니다. 11월 17일 국립극장에서 상



양팔 없는 호른리스트 펠릭스 클리저
(출처 : 연합뉴스(2022.11.2.))

연된 연극 '틴에이지딕'의 주연을 맡은 장애인 배우 하지성, 조우리씨도 "관객이 보시기엔 무대 위 배우들이 장애인, 비장애인으로 비칠 수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다른 몸일 뿐"(매일경제, 2022.11.1.)이라고 말합니다.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제자의 오케스트라 협연 데뷔 무대를 기획한 피아니스트 김지현 코리안컬처리더스 대표도 "장애와 비장애의 벽이 악기 앞에선 무색하다"(중앙선데이, 2022.11.5.)고 말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장애인 예술"을 편견이 아니더라도 예술적 요소 이외에 "장애"라는 요소를 염두에 두지 않고 소위 "비장애인 예술"과 완전히 같은 마음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장애인"이라는 사람을 고려해야 할지, "장애"라는 창작의 맥락에 집중해야 할지,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있습니다. **"장애와 예술"**을 합쳐서 그냥 하나의 장르처럼 "장애 예술"로 부르고 싶지만, 엄연히 소외받고 있는 "장애인의 창작과 문화참여" 상황을 고려한 정책용어가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장애인·비장애인이 예술로 함께 어울리는 '예울림 페스티벌'이 11월 30일 대전에서 개최(뉴시스, 2022.11.28)된 것도 아직은 일천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정부는 지난 9월에 '제1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본계획(2022~2026)'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해외로 눈을 돌려보면, 13년 만에 우주비행사를 신규 모집한 유럽우주국(ESA)에서 세계 최초 장애인 우주비행사 후보를 선발(연합뉴스,

2022.11.24.) 했습니다. 3년간 예산 3조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수하고서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들으니, 우리 정책이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느낍니다. “시각장애인이 셀피를 찍을 수 없다면 그런 기술은 차별도구다”(한겨레신문, 2022.11.14.)며 구글이 10월에 출시한 스마트폰 픽셀7에 ‘가이드 프레임’ 기능을 넣었습니다. OTT 업계에서도 배리어프리 콘텐츠를 적극 강화하는 추세(매일경제, 2022.11.10.)라고 합니다. 장애인을 고려하는 기술이 기특한데, 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바로 세상을 글로 보여주는 “화면해설 작가들”(한겨레신문, 2022.11.1.)이랍니다. 장애 예술이든 장애인 예술이든, 장애인을 위한 예술이든, 특별하지 않게 받아들여지는 사회가 되려면 정책과 기술과 사람이 함께 더 노력해야겠습니다.

포브스가 카타르 월드컵 대회 개최 투자비용만 무려 303조원(연합뉴스, 2022.11.26.)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2023년 우리나라 정부 예산안 639조원의 절반에 육박합니다. 반면 총 120만명의 방문객이 예상되는 사상 첫 겨울 월드컵의 경제적 효과는 26조(파이낸셜뉴스, 2022.11.20.)로 예측된답니다. 오일머니 이슬람 국가의 이미지 개선 효과로 그 적자를 정당화해야겠지만, 그것조차 빨간색인 것 같습니다. 경기장 건설과정에 발생한 인명사고와 노동착취로 이번 월드컵이 시작 전부터 ‘피의 월드컵’으로 불렸고, 여성과 성소수자의 인권문제를 지적하며 각국 선수들이 무지개 완장 착용(한겨레21, 2022.11.23.)을 예고했습니다. FIFA의 으름장으로 좀 덜 정치적인 완장으로 대체되기는 했지만, 관중들이 무지개 옷을 입고 입장하려다가 30분간 억류(한겨레신문, 2022.11.23.)되기도 하고, 성소수자 상징으로 착각해서 고향 깃발을 뺀(조선일보, 2022.11.24.) 사연도 전해졌습니다. 포르투갈-우루과이전에서는 “이란 여성을 존중하라”는 문구가 적힌 슈퍼맨 옷을 입은 남성이 난입(뉴스1, 2022.11.29.)했지만, 오히려 큰 비난을 받지는 않았답니다. 음주 금지 등 글로벌 시민들의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카타르의 문화 때문에 오히려 인접한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가 월드컵 최대 특수를 누리는 도시(조선일보, 2022.11.23.)로 주목 받기도 합니다. 월드컵 특수라면 우리나라 축구팀의 승패에 상관없이 무조건 ‘승리’하는 치킨(한겨레신문, 2022.11.29.)의 매출상승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사실 월드컵이나 올림픽 같은 국제 스포츠 행사에서 선수들의 모든 정치적 행동을 금지한다는 말자체가 더 정치적입니다. 국가 연주 때 그냥 침묵했던 선수들에게 이란 당국이 ‘고분고분 안하면 가족이 위험해질 것이라고 위협(연합뉴스, 2022.11.29.)했다는 소식은 스포츠란에 있지만 정치뉴스입니다. 아무도 마스크를 안 쓴 월드컵 중계를 시청한 중국인들이 SNS에 “왜 우리만?”(연합뉴스, 2022.11.24.)이라며 분노의 “열 가지 질문(十問)”을 게시



무지개 완장을 차겠다고 밝히는 해리 케인
(출처 : JTBC(2022.11.21.))

하였습니다. 시진핑 정부의 봉쇄조치에 반발하며 “백지”를 들고 거리로 뛰쳐나온 중국인들이 어떤 혁명을 이룰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정치뉴스입니다. 세계인의 이목과 이해관계가 알게 모르게 촘촘히 연결된 **월드컵 효과**가 어떻게 국제정세까지 바꾸어 놓을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축구공처럼 알 수가 없습니다.

유엔은 2022년 11월 15일에 세계인구가 80억명을 돌파(연합뉴스, 2022.11.7.)한다고



세계 인구가 11월15일 80억명 돌파
(출처 : 픽사베이,
한겨레신문(2022.11.14.))

밝혔습니다. 50억명을 돌파한 1987년에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환기시키기 위해 7월 11일을 '세계 인구의 날'로 정했었습니다. 이 추세라면 2080년에는 세계인구가 약 104억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제 지구는 80억 인구를 버틸 수 있을까(한겨레신문, 2022.11.14.) 걱정됩니다. 환경단체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세계 15대 육가공·낙농업체가 내뿜는 메탄이 유럽연합 회원국 전체 배출량의 80%가 넘고, 세계 10대 온실가스 배출국에**

맞먹는다(연합뉴스, 2022.11.15.)고 합니다. 흰긴수염고래가 매일 먹는 1000만개의 미세플라스틱(주간조선, 2022.11.18.)은 인간들이 쓰고 버린 것들입니다.

글로벌생태발자국네트워크(GFN)와 세계자연기금(WWF)에 따르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인도인의 생활수준으로 산다면, 1년에 지구가 약 0.8개만 있으면 되지만, 미국인처럼 산다면 지구 5개가 필요하다고 추산했습니다. **인구** 문제의 심각성을 전하는 보고서나 기사에 후진국의 조밀한 판자집과 유색인 군중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파렴치한 것인지 생각해볼 일입니다. 지구촌은 인구 폭발로 걱정인데, 대한민국은 인구 감소가 걱정입니다. 3분기 출산율이 0.8명 아래로(시서저널, 2022.11.23.) 내려갔고 35개월째 인구 자연감소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지방소멸”의 위기감이 크다보니 **“인생샷 성지' 입소문 나더니..."살고 싶다" 작은 마을의 기적(한국경제, 2022.11.14.)** 같은 기사들이 눈길을 끄니다. 너도나도 문화를 활용한 관광객 유치에 나섭니다. 그 과정에서 인구 위기를 막을 근본적 대책 보다는 관광 시설 보수 등에 집중되는 지방소멸기금에 대한 논란(노컷뉴스, 2022.11.18.)도 들려옵니다. 줄어드는 노동력을 이주노동자로 확보하다보니 이제 총인구의 4%가 외국인인 '다문화 사회'를 넘어 '다민족 국가'(문화일보, 2022.11.4.)가 되었습니다. 이에 걸맞게 인구 정책의 리셋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소멸, 고령화, 다문화 사회를 준비하는 것이 문화정책의 중요한 과제로 다가옵니다.

참사와 사고로 얼룩진 11월은 국가의 의미를 되돌아보는 달이기도 했습니다.

1 사회·문화·트렌드

▶ 기사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장애와 예술



양팔 없는 호른니스트 클리저
(출처 : 연합뉴스 (2022.11.2.))



연극 '틴에이지드' 주연 하지성(왼쪽), 조우리 배우
(출처 : 매일경제 (2022.11.1.))

- '양팔 없는 호른니스트' 클리저 "꿈꾸는 자에겐 책임도 따르죠" (임지우, 연합뉴스, 2022.11.2.)
- "편견도 차별도 없는 '無장애극' 보러 오세요" (고보현, 매일경제, 2022.11.1.)
- 장애와 비장애의 벽, 악기 앞에선 무색하죠 (유주현, 중앙선데이, 2022.11.5.)
- "세상을 글로 보여주는 사람들 '회면해설 작가' 아시나요" (강성만, 한겨레신문, 2022.11.1.)
- 장벽 뛰어 넘은 배리어프리 콘텐츠 (이승연, 매일경제, 2022.11.10.)
- 서울 문화비축기지, 시각장애인 동행 '손으로 보는 건축' (고은지, 연합뉴스, 2022.11.7.)
- 장애인·비장애인 예술로 어울리는 '예울림 페스티벌' (박주연, 뉴시스, 2022.11.2.8)
- 유럽우주국, 세계 최초 장애인 우주비행사 후보 선발 (현혜란, 연합뉴스, 2022.11.24.)
- 시각장애인, '셀피' 찍을 수 없다면..그런 기술은 차별도구다 - 이희욱의 휴머놀로지 | 구글폰의 픽셀7 (이희욱, 한겨레신문, 2022.11.14.)



구글폰의 시각장애인 셀카 지원기술
(출처 : 한겨레신문(2022.11.14.))



최초 장애인 우주비행사 후보
(출처 : 연합뉴스(2022.11.24.))

#월드컵 효과



무지개 완장 대신 허용된 차별반대 완장
(출처 : 한겨레21(2022.11.23.))



월드컵을 위해 설치된 두바이의 “팬 존”
(출처 : 조선일보 (2022.11.23.))

- [월드컵] 포브스 "카타르 대회 개최 투자비용만 무려 303조원" (장현구, 연합뉴스, 2022.11.26.)
- [2022 카타르] 사상 첫 겨울 월드컵...경제적 효과 26조 (전상일, 파이낸셜뉴스, 2022.11.20.)
- 어젯밤 치킨은 또 '승리'...피크 배달료 1만6천원까지 (유선희, 한겨레신문, 2022.11.29.)
- 카타르 맥주 금지 덕분? 월드컵 최대 특수 누리는 이 도시 (오경목, 조선일보, 2022.11.23.)
- '피의 월드컵'과 무지개 완장... 카타르 둘러싼 논란들 (신지민, 한겨레21, 2022.11.23.)
- 카타르 '무지개 검열'...티셔츠 입고 경기장 가다 "30분 억류" (박병수, 한겨레신문, 2022.11.23.)
- "성소수자 상징인줄 착각"...카타르서 고향 깃발 뺀 관광객 (김가연, 조선일보, 2022.11.24.)
- 포르투갈-우루과이전에 '슈퍼맨' 관중..."이란 여성 존중하라" (권혁준, 뉴스1, 2022.11.29.)
- 월드컵도 못 가린 '히잡 시위' 상흔...국가 제창 거부한 이란 대표팀 '사형' 우려까지 (박용하, 경향신문, 2022.11.27.)
- [월드컵] "이란, 선수들에 '고분고분 안하면 가족 위험' 위협" (경수현, 연합뉴스, 2022.11.29.)
- 마스크 안 쓴 월드컵 본 중국인들, SNS에 "왜 우리만?" 게시물 (인교준, 연합뉴스, 2022.11.24.)
- 베이징 시위 현장 가보니...700명 백지 들고 "자유 달라" 외쳤다 (이벌찬, 조선일보, 2022.1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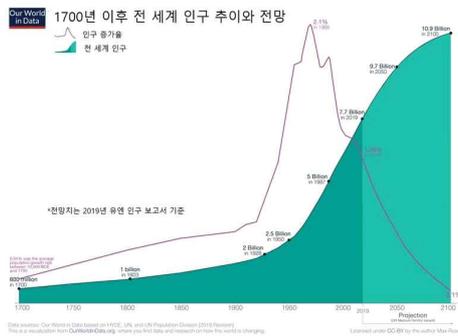


X표시된 국기를 들고 있는 이란 축구팬
(출처 : 경향신문(2022.11.27.))



검열 반대 의미로 백지를 들고 나온 베이징의 시위대
(출처 : 조선일보(2022.1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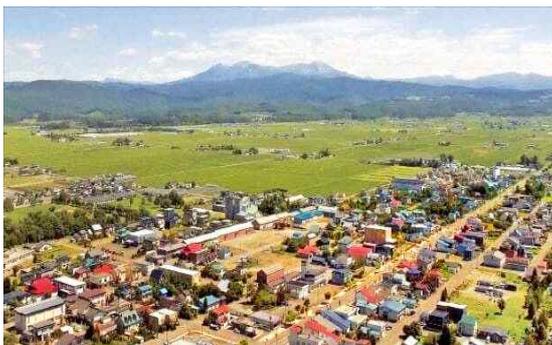
#인구



인구증가율과 세계 인구 예측
 (출처 : 한겨레신문 (2022.11.14.))

해변에 밀려온 플라스틱 쓰레기들
 (출처 : 주간조선(2022.11.18.))

- 지구 과밀화 가속...유엔 "세계인구 이달 15일 80억명 돌파" (오진송, 연합뉴스, 2022.11.7.)
- 세계 인구 80억 시대...지구는 우리를 버틸 수 있을까 (곽노필, 한겨레신문, 2022.11.14.)
- "15대 육가공·낙농업체 내뿜는 메탄이 세계 11%" (강진욱, 연합뉴스, 2022.11.15.)
- 흰긴수염고래가 먹는 미세플라스틱 매일 1000만개 (김형자, 주간조선, 2022.11.18.)
- 대한민국, '아기가 줄어든다...3분기 출산율 0.8명 아래로 (장지현, 시서저널, 2022.11.23.)
- 유명 마을이 SNS 성지로..!시골의 재발견 앞장서는 스타트업 (김종우, 최다은, 한국경제, 2022.11.10)
- '인생샷 성지' 입소문 나더니..."살고 싶다" 작은 마을의 기적 (정영호, 한국경제, 2022.11.14.)
- 인구 위기 막을 돈으로 관광 시설 보수..지방소멸기금 논란 (김혜민, 노컷뉴스, 2022.11.18.)
- 총인구의 4%가 외국인..'다문화 사회' 넘어 '다민족 국가' (권승현 외, 문화일보, 2022.11.4.)



인생샷 성지로 알려진 일본의 히가시카와
 (출처 : 한국경제 (2022.11.14.))



매주 일요일 혜화동에 열리는 필리핀 마켓
 (출처 : 문화일보(2022.11.4.))

→ 기타 눈여겨 볼 기사들

<다양성>

- 다양성·포용성 위한 인공지능 가능한가...제3회 유네스코 토크 (김호천, 연합뉴스, 2022.11.7.)
- 미 법원 "미스USA에 성전환자 참가 거부해도 정당" (강진욱, 연합뉴스, 2022.11.3.)
- 대만 원주민의 투쟁 "내 이름을 돌려줘"...정명운동의 이면 (홍명교, 한겨레신문, 2022.11.12.)

- 마야어 랩 들어봤어?...'블랙팬서2'에 담긴 문화다양성 (김효실, 한겨레신문, 2022.11.25.)
- "언어차별도 금지"...美법무부, 한국어로 보도자료 배포 (김동현, 연합뉴스, 2022.11.22.)



워싱턴DC 백신 접종장소
한국어 안내문
(출처 : 연합뉴스
(2022.11.22.))

<참사와 사고>

- 주최자 없는 행사도 안전대책 세운다..3일부터 지역축제 합동점검(종합) (김수현, 연합뉴스, 2022.11.1.)
- 애도의 탈정치화, 역풍을 맞다 (김지환, 주간경향, 2022.11.4.)
- '공자' 축제는 문명의 장치이자 소통하는 공간 (김월희, 문화일보, 2022.11.21.)
- '에우리피데스' 의례는 건강한 일탈... 관리부실땀 사고 (김헌, 문화일보, 2022.11.21.)
- NCT127 인니 공연서 관객 30여명 실신해 중단...둘째날은 안전 강화 (유자비, 뉴시스, 2022.11.7.)
- 생환 광부 "갱도내 전혀 쓸일 없는 비닐 발견... 하늘이 도운 것" (명민준, 동아일보, 2022.11.7.)
- 문체부 "공연장 안전관리 제도 보완"...관련 업계 간담회 (이은정, 연합뉴스, 2022.11.3.)



이태원 참사 추모 현장
(출처 : 연합뉴스 (2022.11.3.))

<기후위기>

- "세계문화유산 내 빙하 3분의1은 2050년까지 사라진다" (이주영, 연합뉴스, 2022.11.3.)
- 기후운동가의 '명작 훼손 시위에 대한 미술인들의 질문 (노형석, 한겨레신문, 2022.11.24.)
- 막내린 제27차 세계기후총회...결정적 장면 5가지 (김규남, 한겨레신문, 2022.11.24.)



COP27 회의 모습
출처 : 한겨레신문
(2022.11.24.)

<유네스코>

- 한국 탈춤,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될 듯 (임지선, 경향신문, 2022.11.1.)
- 대한민국 11개 유네스코 창의도시, 전주서 발전 방향 모색 (백도인, 연합뉴스, 2022.11.3.)
- 문화재 주변 보존구역 축소 등 '규제 완화...일부선 문화재 훼손 우려 (도재기, 경향신문, 2022.11.9.)
- 123만명이 일군 '태안의 기적, 가치 인정 받았다.. 세계기록유산 등재 (최혜승, 조선일보, 2022.11.27.)

<저항과 시위들>

- '홍콩시위대 노래 연주' 파장..홍콩 "한국 총영사에 강력 항의" (이의진, 연합뉴스, 2022.11.15.)
- [르포]"시진핑 비판 시위 틀어막아라"... 베이징은 살벌했다 (조영빈, 한국일보, 2022.11.29.)
- "대통령 전용기가 윤석열김건희 부부 자가용인가" 언론계 분노 (노지민, 미디어오늘, 2022.11.10.)
- '히잡' 시위 두 달, 미성년자만 58명 사망...이들 전 9살도 숨졌다 (박정수, 한겨레신문, 2022.11.21.)



이란 히잡 시위 중 희생자들의 장례
(출처 : 한겨레신문 (2022.11.21.))

<기타>

- 시 쓰며 포화 견디는 우크라이나 아이들..."살아서 노래하게 해주세요" (임인택, 한겨레신문, 2022.11.28.)
- "석유 회사에 횡재세 거둬야" (MBC 뉴스, 2022.11.16.)
- 예술위, 문화예술 테마형 임대주택 라운드테이블 (박주연, 뉴시스, 2022.11.2.)
- 중국 OTT서 '사드 한한령' 이후 한국영화 첫 서비스 (조준형, 연합뉴스, 2022.11.19.)
- 미술계 21개 단체, 국회에 '미술진흥법' 제정 촉구 (황희경, 연합뉴스, 2022.11.14.)
- 10대 아이돌부터 40대 부모까지 MZ? 카오스에 빠진 MZ활용법 (박재령, 미디어오늘, 2022.11.29.)
- 외로운 개인. 상처 입은 대중이 '가짜 뉴스'를 만든다 (윤상진, 조선일보, 2022.11.26.)
- 20대 국회 의원입법 1만4986건 폐기... "포퓰리즘 '함량미달 입법 심화" (이근홍, 문화일보, 2022.11. 23)

2 문화·정책·연구

▶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 원문이나 별첨<문화정책 뉴스 스크랩>을 참고하세요

□ 코로나 회복 동력 찾기 : 영국 DCMS의 라이브이벤트 재보험 정책과 ACE의 자본 투자 프로그램 (변영진, ACKIS 정책새소식 38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2.11.2)

-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는 문화회복펀드(Cultural Recovery Fund)를 활용해 라이브 이벤트 재보험 정책(Live Events Reinsurance Scheme)을 시행
- DCMS가 15.7억 파운드(한화 약 2.5조 원) 규모의 문화회복펀드 중 4억 파운드(한화 약 6,500억 원)를 활용해 라이브 이벤트 재보험 정책을 실시함
- 정부는 일반 보험사가 이벤트 회사들에게 보험 상품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재보험사의 역할 담당
- 라이브 이벤트 재보험에 참여하는 보험회사는 일반 보험 상품에 행사 취소 등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는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함
- 해당 보험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행사일정보로부터 최소 8주 전에 상품을 구입해야 하며, 계약 내용에 따라 이벤트 전체 비용까지 보장 가능함
- 팬데믹 관련 위험을 보장하면서 이벤트 주최자들이 보다 자신있게 투자할 수 있는 안정적 환경 제공

□ 팬데믹 2년 미국 소비트렌드는 어떻게 변했나 (글로리아 김 코트라 글로벌 마켓 리포트 22-014, KOTRA)

- 인플레이션이 바꾼 미국인의 소비 습관 : 이미 시작된 씀씀이 줄이기, 높아진 가격 민감도
- 허물어진 영역과 경계 : 성별을 구분 짓지 않는 젠더뉴트럴(Gender-Neutral)의 시대, 구분이 사라진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
- 더욱 중요해진 지속가능성의 가치 : 라이프스타일이 된 지속가능성, 탄소 저감을 위한 노력
- 코로나시대 소비 습관, 지속하는 것과 변화하는 것 : 디지털 소비자의 시대, 뉴노멀로 정착된 하이브리드 방식, 다시 함께, 다시 밖으로

□ 인공지능을 신뢰하는 대중 인식의 확산과 원인 (박상현 금융경영브리프, 하니금융경영연구소, 2022.9.19)

- 인간보다 인공지능의 결정을 더 나은 대안으로서 신뢰하는 대중 인식이 확대
- 최근 구글이 인도 사용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인공지능에 관한 설문과 인터뷰에 따르면 응답자의 79% 이상이 인공지능의 결정을 신뢰하고 수용한다고 표현
- 대중은 인공지능이 도출한 결과를 비판 없이 수용하는 행동 패턴과 태도를 나타냄
- 인공지능 시스템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질 수 있는 인간과 대조적으로 부정행위나 사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공정한 의사결정을 제공할 것이라고 믿음

☐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의 의미와 향후 과제 (하혜영, 류영아, 국회입법조사처, 2022.11.17)

- 2023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생활인구라는 개념을 새로 도입
-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 및 외국인등록인구 외에 지역에 체류하는 인구까지 포함하는 개념
- 생활인구는 인구의 이동성까지 반영한 것으로, 향후 실제 행정수요를 반영한 공공서비스 공급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됨
- 다만, 현행 주민등록제도 하에서 이러한 새로운 인구개념의 도입은 정책 현장에서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시행착오에 대한 대비가 필요

[그림] 생활인구의 구성



<기타 소개된 연구 자료들 : 요약내용은 별첨 <문화정책 뉴스스크랩> 참조>

- ☐ 통계로 보는 예술인 창작생활 (KCTI-INFO 제215호, 2022.10.17.)
- ☐ 『문화관광 콘텐츠 분야 코로나19의 영향과 변화』 (김형중 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2.10.31.)
- ☐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 분석 (노수경,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2.10.31.)
- ☐ 세계문화장관회의(MONDIACULT) 2022, 글로벌 공공재로서의 문화정책 가치 재고 (정보람, 아키스브리핑 제297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2.11.9.)
- ☐ K를 둘러싼 사회문화적 담론 (박소정, 한류NOW,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2022.11.24.)
- ☐ 서울시 랜드마크, 의미가치 홍보하고 시민 즐기게 콘텐츠 접근성 확보해야 (반정희, 김수진, 서울연구원 이슈페이퍼, 2022.11.22.)
- ☐ 문화예술 콘텐츠로서 디아스포라의 가능성과 확장성에 대해 - 한국이민사 120년 기념 관련 두 개의 전시를 중심으로 (김성배, 인천문화통신 3.0, 2022.11.)
- ☐ 장애예술인 예술활동 지원정책의 현재 : 1차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조현성, AKIS 문화돋보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2.11.22.)

3 문화·기술

▶ 기사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기사요약은 별첨 <문화정책 뉴스 스크랩> 참조

#기술 트렌드

□ **인간의 호기심 인공지능에도 있다.. AI에서 그 호기심 조절하는 알고리즘 개발 (최창현 AI타임스, 2022.11.13)**

- MIT 불가능한 AI 연구소와 MIT 컴퓨터과학 및 인공지능연구소, 핀란드 알토대학교 등의 공동연구팀이 AI가 너무 호기심이 많고 주어진 작업에 산만해지는 문제를 극복하는 알고리즘 개발

□ **서울시에 1호 로봇공무원 생겼다..민원인 안내 등 담당 (권혁진, 뉴시스, 2022.11.22)**

- '로봇+주무관'이라는 의미 담아 '로보관'으로 4시간 동안 30~40개소 사무실 문서배달 가능



출처 : 뉴시스(2022.11.22.)

□ **'해엄치는 연어 보여달랬더니, AI는 강물에 살코기를 띄웠다 (도우리, 한겨레21, 2022.11.4)**

- 그림 인공지능 중독기 인간 세상을 딥러닝한 AI 의외의 허점



누리꾼들이 SNS에 업로드한 '그림 인공지능'으로 출력된 연어 이미지 (출처 : 한겨레21, 2022.11.4.)

#기술과 예술

□ **3초 샘플 듣자 30초 넘는 피아노곡 '뚝뚝'..예술 창작하는 AI (강건택, 연합뉴스, 2022.11.3)**

□ **'비슷한 그림' 알고리즘 추천으로..멘디 엘-사예이근민, 2인전 (박현주, 뉴시스, 2022.11.4)**

- 색감+신체 담긴 닳은 작품...검색엔진으로 만나 소통...영국 작가+한국작가 리만머핀 서울서 'Recombinant'

☐ **예술과 첨단기술 어우러진 피칭대회 '아이디어 넘쳤다' (이성관, 시타임스, 2022.11.16)**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아트로버컴퍼니가 공동으로 개최한 제1회 APE 캠프 인천 송도에서 열려...'소리의 생김새' '트랜스 휴먼' 'AI와 무당' 등 주제.."돈 주고 할 수 없는 값진 경험했다"는 참가자 반응 이어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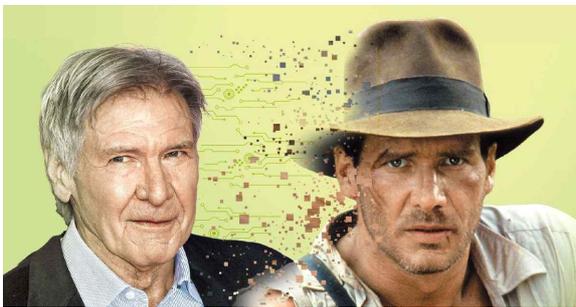
#인간 환생

☐ **브루스 윌리스가 광고에..은퇴작고 배우도 신작 출연 '딥페이크 논란' (구본권, 한겨레신문, 2022.11.14)**

- 브루스 윌리스 '실어증' 은퇴 불구 딥페이크로 통신사 광고에 출연...김광석도 사망 뒤 신곡 영상 화제제작비 절감, 표현 영역 확대 불구 개인 정체성 혼란 대비한 논의 필요

☐ **80대 해리슨 포드, 40대 인디애나 존스로 돌아온다...AI 영화혁명 (변하원, 조선일보, 2022.11.29)**

- 내년 개봉 인디애나 존스 5편에서 디에이징 기법으로 1편 얼굴 재현



출처 :
조선일보(2022.11.29.)

#메타버스

☐ **[창사기획-리얼 메타버스③]미리 옷 입어보고, 헤어스타일 바꾼다...패션의류업계도 주목 (송중호, 뉴시스, 2022.11.13)**

- 국내외 패션 브랜드, 메타버스 플랫폼에 매장 열고 고객 유치에 사활...구찌·돌체앤가바나·타미힐피거 등 유명 브랜드 메타버스 통해 제품 선보여...메타버스 내 매장 성공에 이어 패션쇼까지 개최...시장은 폭발적 반응...가상세계 속 익숙한 브랜드·제품에 소비자 지갑 열어...아직은 마케팅 수단...메타버스 서비스 성공 사례에 자극받은 패션브랜드 진입 계속될 전망

☐ **'로블록스' Z세대 4명 중 3명 "디지털 패션 아이템 샀다" (오동현, 뉴시스, 2022.11.24)**



출처 : 뉴시스
(2022.11.24.)

- ☐ **메타버스 가상현실 세계에 땅을 사는 사람들** (조 타이디, BBC News 코리아, 2022.11.6)
 - 개인과 기업은 지난 12개월 동안 약 3조원어치 가상토지를 매입

- ☐ **메타버스 서울, 미국 타임 '올해 최고의 발명' 선정** (윤보람, 연합뉴스, 2022.11.13)
 - 타임의 '2022 최고의 발명'(TIME's Best Inventions of 2022)에 선정



출처 : 연합뉴스(2022.11.13.)

#NFT

- ☐ **美 NFT 상표 출원 지난해 3배 이상 증가** (임대준, 시타임스, 2022.11.8)
- ☐ **프리다 칼로 그림 NFT 팔겠다고 원본 태운 사업가, 돈만 날린 듯** (임화섭, 연합뉴스, 2022.11.10)

#AI 윤리와 제도

- ☐ **"안전한 메타버스를 조성할 책임" 정부, 윤리원칙 공개** (정인선, 한겨레신문, 2022.11.28)
- ☐ **음악 사용 사전허가 '잡음' ... "OTT도 TV처럼 사후정산 도입해야"** (안진용, 문화일보, 2022.11.21)
- ☐ **게이머 분노 부른 '고무줄 심약..게임위 "소통 간담회 열겠다"** (장구슬, 중앙일보, 2022.11.10)

#데이터 빅브라더

- ☐ **공개 데이터로 훈련하는 AI 제동 걸리나..사상 첫 소송 제기**(임화섭, 연합뉴스, 2022.11.24)
- ☐ **'불법 위치정보 수집' 구글, 미 40개 주에 5200억원 배상** (안태훈, JTBC, 2022.11.15)
 - 구글이 애리조나를 제외한 코네티컷주 등 40개 주에 3억 9천만 달러(우리 돈 약 5200억 원)를 배상하기로 합의

#기술이 만드는 문화트렌드

- ☐ **카톡방 대화 같은데 소설이라고?...짧은 콘텐츠에 빠진 2030** (고민서, 매일경제, 2022.11.1)
 - 국내 it기업 양대산맥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쇼핑과 웹소설 등 자사 주요 서비스에 '숏폼(short-form·짧은 동영상 콘텐츠)' 플랫폼 입히기에 한창
- ☐ **소셜 로봇에 애착 갖는 아이, 사회성 발달에 득 될까 득 될까** (천근아, 중앙일보, 2022.11.12)
 - 인간, 로봇과 교감하는 '일라이자 효과'

4 해외·동향

▶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별첨 <문화정책 뉴스 스크랩>이나 링크를 통해 기사 원문을 참고하세요

☐ 안전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한 영국 온라인 세이프티 법 (ACKIS 정책새소식 2022.11.3,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디지털 이용자 보호의 책임을 테크 기업에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합법적이더라도 유해한 콘텐츠를 적극 걸러내는 조치 요구
- 위반시 연간 글로벌 매출의 10% 벌금 부과
- 합법적 표현은 임의로 삭제할 수 없게 표현의 자유 보호 장치도 마련

☐ NSW 공공미술 툴킷으로 우수사례와 가이드라인 제공 (NSW(호주 New South Wales) 지자체 정부 홈페이지, 2022.10.21.)

- 지자체 산하 기관들이 공공미술 기획, 계약, 실행, 유지에 참고하도록 지원



☐ 창의적인 문화적 경험을 당신의 삶 가까이로 - 2023-26년도 단체 지원 계획 발표 (영국 예술위원회 2022.11.4)

- 영국 아트카운슬(Arts Council England)이 11월4일에 2023-26년도 단체 지원 계획에 대해 발표
- 총 4,350만 파운드의 시민들의 문화참여를 위해 지원
- 총 990개 단체에 매년 4억 4,600만 파운드 지원 예정
- 아동 청소년에 대한 문화 체험 사업 지원예산 20% 증액 등 보다 많은 시민들의 삶에서 가까운 문화생활 지원 예정

☐ “문화 및 창조 산업을 통한 경제 활성화” 통계 조사결과 발표 (호주 인프라교통지역개발및통신부, 2022.10.20, 호주 정부 홈페이지)

- BCARR(Bureau of Communications, Arts and Regional Research)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문화 및 창조 산업이 호주 경제를 지속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BCARR은 “Cultural and creative activity in Australia 2010–11 to 2019–20” 보고서를 통해 문화 및 창조 활동의 경제적 기여도를 정량화했는데 2019-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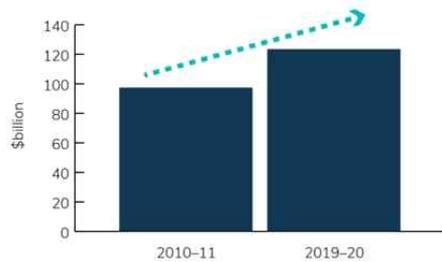
국가 경제에 1,223억 달러를 기여한 것으로 조사됨

- COVID-19가 문화 및 창조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도 분석했는데, 컴퓨터 시스템 설계 산업에서 상당한 성장을 보여줌. 재택 근무 및 클라우드 공유 서비스의 증가로 인해 컴퓨터 및 디지털 디자인은 지난 10년 동안 178억 달러의 증가
- 그 중 특히 경제적 영향이 큰 영역 : 문학 및 인쇄 매체, 방송, 전자 및 디지털 매체, 영화, 패션 등

Key chang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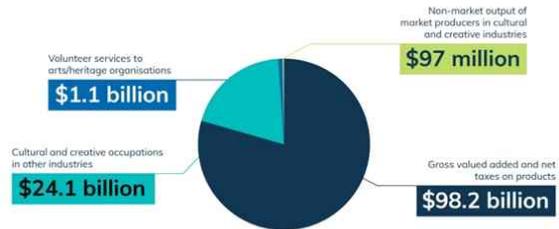
Cultural and creative activity plays an important role in Australia's economy, growing to **\$122.3 billion in 2019-20**, an increase of \$26.0 billion (27.1 per cent) over the last 10 years.

Chart 1: Cultural and creative activity, 2010-11 and 2019-20



Source: ABS Australi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Australian National Accounts: Input-Output Tables; BCARR calculations

Chart 2: Components of cultural and creative activity in 2019-20



Source: ABS Australi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Australian National Accounts: Input-Output Tables; BCARR calculations

The industry domains with the greatest contribution to activity in 2019-20 were design at \$50.9 billion, fashion at \$15.1 billion, literature and print media at \$8.3 billion, and broadcasting, electronic or digital media, and film at \$8.1 billion.

☐ **Creative Forces 커뮤니티 참여형 사업 지원프로그램(Creative Forces Community Engagement Grants) 지원 신청 접수 중 (미연방예술기금(NEA), 2022.11.1.)**

- 전국의 군인 관련 커뮤니티 기반 예술 프로그램 지원
- NEA 크리에이티브 포스는 군인 대상 치유 예술 네트워크의 일환
- 2023년에는 두 영역으로 신청 접수
 - 신규 지원 : 매칭 그랜트 1년 최대 \$10,000 지원
 - 연속 지원 : 기존 지원단체의 비 치료적 치유예술 프로그램에 대해 1년에 \$10,000 - \$25,000 지원, 2년간 진행되는 프로젝트의 경우 최대 \$50,000까지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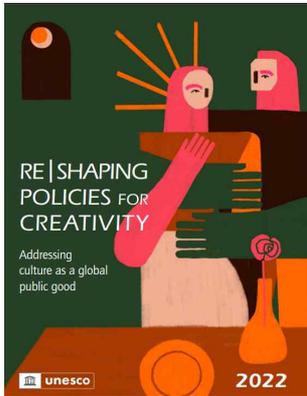
[문화+정책_뉴스스크랩] 텔레그램 채널을 구독하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전체기사 목록과 좀 더 자세한 요약을 보시려면 <문화정책 뉴스스크랩> 파일 다운로드

문의:미래전략팀

문화정책의 미래 어젠다들

공공기관에서는 11월이면 내년 예산을 제안하고 승인받는 전투가 막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당장 내년 사업예산도 중요하지만 금방 다가올 미래를 생각하며 문화정책이 대비해야 할 어젠다들은 무엇일까요? 유네스코(UNESCO), 세계도시문화포럼(WCCF) 등 주요 국제 문화정책기구들이 최근에 발간한 정책보고서들 안에서 공통의 키워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국제 문화기구들이 내놓는 미래문화정책 보고서들의 어젠다와 논조가 비슷해진지가 한참 되었습니다. 오히려 현장에서 다양한 가능성과 답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침 지난 10월23일부터 10월25일까지 3일간 아부다비 MAS(Manarat Al Saadiyat) 미술관에서 “2022 아부다비 문화서밋”(Abu Dhabi Culture Summit 2022)이 열려서, 그 현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낯선 중동의 문화정책 현장을 직접 볼 기회를 갖은 것은 “문화정책의 다양성” 확대 차원에서 더 의미가 큼니다.



유네스코 발간 미래 문화정책 보고서 "Re-Shaping Policies for Creativity" (2022)



10월23일부터 10월25일까지 3일간 아부다비 MAS(Manarat Al Saadiyat) 미술관에서 열린 “2022 아부다비 문화서밋”(Abu Dhabi Culture Summit 2022)의 행사장 입구

[목 차]

1/2. 아부다비 컬처 서밋 2022 현장에서 발견하는...(2022.11.09. 발간)

- (1) 사막과 바다 ... natural & cultural cross-road
- (2) 문화정책 어젠다의 스펙트럼 ... 진주잡이 노동요부터 휴머노이드의 인간성 토론까지
- (3) 이를 펼쳐 보여줄 수 있는 프리즘 ... 왕권의 리더십?
- (4) 글로벌라이제이션 ... 맥락을 소통하는 문화적 대화
 - ☞ 알아두면 쓸모 있는 정보 - 중동지역 문화정책 관련 정보원

2/2. 국제 문화기구 발간 정책보고서에서 요약되는... (2022.11.16. 발간)

- (1) UNESCO (유네스코)
- (2)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 (3) WCCF (세계도시문화포럼)